

**Steven Franks, *Syntax and Spell-out in Slavic*,  
Bloomington: Slavica, 2017.**

정 하 경\*

미국 인디애나 대학 슬라브어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저자 Steven Franks는 슬라브어학 생성통사론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뚜렷한 연구업적과 왕성한 학술활동으로 알려진 학자이다. Franks는 그의 학문적 활동의 전반기에는 슬라브어의 격에 대한 통사적 연구에 몰두했다. 예를 들면 여격 및 제2여격의 통사적 허가 메커니즘에 대한 많은 논문을 남겼다. 이 시기에는 러시아어에서 얻은 데이터가 연구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반기부터 은퇴를 몇 년 남겨두지 않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는 남슬라브어의 통사현상의 설명에 전념해 왔다. 특히 남슬라브어의 대표적 통사적 특징인 접어체계에 대해 수많은 저작을 저술했다.

저자 Franks가 남슬라브어에 대해 주로 연구해 왔기에 필자는 그의 최근의 저서 *Syntax and Spell-out in Slavic*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책이 남슬라브어에 대한 연구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저자가 직접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원래 남슬라브어 명사구 구조에 나타나는 미세변이 연구에 붙은 서론으로 의도되었다가, 집필이 진행되면서 특정 남슬라브어 현상들을 다루기 전 필요한 일반론적 논의를 펼치는 책으로 재기획되었다. 남슬라브어 현상들에 대한 보다 경험적인 연구들은 이후에 출간될 두번째 책에 더 많이 담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획 변화의 결과, 이 책에는 비록 남슬라브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들과 관련한 일반언어학적 관

---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Jung, Hakyu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점의 이론적 논의가 더 중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여러 남슬라브어 현상과 공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통사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생성통사론 전반에 대한 개론적 소개와 주요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어의 어순문제 같은 특정 남슬라브어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슬라브어학 연구자뿐 아니라 통사론 연구자 일반에게도 간결하고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특히 통사와 형태 측면에서)에 대한 거시적 논의(1장)서부터 구 구조(phrase structure) 및 그 구조의 변화/파생에 대한 생성통사론적 전제와 주장들(2장)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2장 “Movement and Multiattachment”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통사 작용인 ‘이동(Move)’의 원리를 살펴본다. ‘이동’이라는 작용에 대한 개념적 외피는 표층구조(S-Structure)와 기저구조(D-Structure)를 구분하는 지배결속이론의 이른바 T-모델로부터 초기 최소주의의 ‘복사’, ‘병합’, ‘삭제’ 모델로 발전해왔다. 가장 최근의 ‘다중 문자화(multiple spell-out)’ 모델의 경우에는 하나의 ‘국면(phase)’이 완결될 때마다 그 때까지 형성된 통사구조가 음성적, 형태적으로 실현된다고 보며 그것이 곧 이동의 요소들이 된다. 결국 Franks는 이동은 일종의 메타 포라고 주장한다. 이동은 통사 수형도에서 다수의 위치 간의 관계이다. 이 수형도에서 이동된 통사적 객체의 다양한 필요(곧 자질의 평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만족된다. 저자는 통상 이동이라고 부르는 작용을 실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새로운 위치에 재병합하는 것보다는 자질에 의한 ‘다중부착(multiattachment)’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동으로 인한 모든 중간적 효과는 이동 자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를 위한 체인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가령, 이러한 가설은 LF *wh*-이동이 이러한 효과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Franks에게 이동이란 문자화의 일부분이 된다.

이와 같이 이동과 같은 통사 작용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기반으로, 3장 “Pronunciation and the Mapping to PF”에서는 통사의 음성적 실현 차원(PF)으로의 사상인 문자화에 있어서 통사 구조의 어떤 부분이 음성적 실현으로 연결되는지 상이한 가능성과 변이 간 경쟁에 대해 설명한다. 2장에서 제시된 통사 모델의 아직 탐구되지 않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한다. 문자화의 타이밍과 선형화, 생략, 복사본 선택 과정에 관한 문제들이 여

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저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들은 결국 다양한 인터페이스 조건의 만족을 최적화하는 문제인 셈이다. 저자가 앞서 전제한 다중부착 모델에서 전통적으로 통사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져 왔던 많은 주요한 자질들은 이제 통사 작용의 결과물을 인터페이스에서 완전히 해독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에 부과된 자질들로 파악된다. 복사-삭제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중부착 모델에서 어떤 구조가 실제로 음성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이상 통사의 문제가 아니다. 곧 어순은 PF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통사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며 PF로의 사상은 매우 역동적이고 고도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 모두에 어떤 구성소의 복사본이 존재할 때 어떤 것을 음성적으로 실현할 것이냐 선택에 따라 이동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가령 구체적인 남슬라브어 이동의 문제(특히 조동사 접어 (*j*)e의 위치 문제)를 다룰 때를 위해 다져놓는 기본적 토대가 된다.

3장에서 다뤘던, 상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사본들 중 어떤 것을 발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4장 “The Pronunciation of Clitics”에 와서 남슬라브어 접어군의 순서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앞서의 논의가 이론적 배경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이 장에서는 비로소 남슬라브어 접어 현상이 소개되며 문자화의 메커니즘, 곧 통사와 PF 간 사상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남슬라브어 접어 시스템이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지 논의된다. “특수한” 접어들, 곧 형태통사적 자질값을 평가(value)해야 하는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동(또는 다중부착)하는 접어들이 어느 위치에서 발음되느냐에 따라 표면적인 어순이 만들어지는데, 저자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점하는 접어가 그 위치에서 발음되어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 혹은 동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어군의 분열(splitting)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외에도 저자는 지연된 접어 배치, 음운적 재조정(제2 위치 효과), 화제화와 접어 *li*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5장 “Two South Slavic Stories: An Appendix”에서는 “부록”이라는 표현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게도, 실제로 저자가 가장 다루고 싶었던, 문자화 작용과 관련된 남슬라브어의 두 가지 문제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 장은 아무래도 저자의 오랜 연구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풍부한 데이터와 심화된 연구주제들이 제시되어 있는 바, 슬라브어 통사 연구자인 필자로서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3인칭 단수 조동사 접어인 (*j*)e가 지니는 특이한 자질들(가령, 접어군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의 문제이다. 남슬라브어에서 접어들은 군집을 이루어 특정한 순서대로 배열되는데, 조동사 접어의 경우 1, 2인칭 형태들은 대명사 접어를 선행하지만 3인칭 단수형인 (*j*)e는 대명사 접어를 후행한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인칭-격 제약(Person-Case-Constraint, PCC)’이 각 언어의 서로 조금씩 성격이 다른 접어군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변이현상에 대한 것이다. 가령, 접어들이 서로 인접, 부가된 복합 핵어로서 단일한 구성소를 이루고 있을 경우 오직 3인칭 대격 접어만이 여격 접어와 공존할 수 있다. 대명사 접어들 간 이러한 PCC 효과가 없다면 접어들이 구로서 상이한 기능소구의 지정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버전의 PCC 효과가 상이한 남슬라브어에서 관찰된다. 결국, ‘문자화’의 메커니즘에서 ‘이동’을 ‘다중부착’으로 보는 저자의 제안은 남슬라브어 접어 순서에 나타나는 제약과 같은 현상에서 그 경험적 근거를 얻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남슬라브어 접어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자는 ‘다중부착’으로서의 ‘이동’이 보다 현상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책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문적으로 통사론을 탐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에게 가장 유용할 언어학 전문서적이다. 아무래도 생성통사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갖추어져 있는 독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슬라브어 데이터는 압도적으로 남슬라브어의 것이다. 한국의 슬라브어학 전공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주전공으로 삼고 있기에 어쩌면 이 책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따라가기 쉽지 않은 (알고 있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책일지도 모른다. 가령, 접어체계 같은 형태통사적 자질은 러시아어를 위시한 동슬라브어에서는 상실되어 몇 가지의 소사만이 남아있기에 러시아어 전공 독자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러시아어학 전공자에게 유용한 이유는 슬라브어의 많은 형태통사현상들이 그 어족 내에서 일종의 그라데이션 형태의 분포를 이루며 연결되는 등 예측 가능한 변이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의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출된 일반화는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의지할 수 있는 설명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남슬라브어 접어 통사체계에 대한 Franks의 분석은 접어체계가 상실된 러시아어에서 당장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PCC와 관련된 다른 현상을 분석하거나 온갖 종류의 어순 변경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